

# 소설작품 평가의 문제

—고소설을 중심으로—

서 대 석 (서울대)

1. 문학작품의 평가론의 문제
2. 소설작품의 평가론
3. 고소설의 작품평가 문제
4. 맺음말

## 1. 문학작품의 평가론의 문제

문학작품을 평가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평가의 척도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작품의 가치나 의의를 논할 경우 작품 자체의 문학성을 대상으로 예술적 가치를 논하는 경우와 문학사적으로 중요시 되는 작품의 문학사적 가치를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서적의 가치를 논할 때 서지적 가치와 책의 내용적 가치를 문제 삼는 것과 상통된다. 책이 오래되었거나 희귀본일 경우 이는 서지적 가치를 가진다. 그러나 흔한 책이라고 하더라도 그 책의 내용이 어떤 사람에게 매우 유익하고 중요시 될 경우 그 책은 가치를 가지게 마련이다. 이런 점에서 문학 작품도 문학사적으로 최초의 작품이라든가 후대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문학사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게 되고, 작품의 내용이 흥미롭고 감동을 주는 경우 작품 자체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게 된다.

이 자리에서 문학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문제는 문학사적 가치를 논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작품 자체의 문학성과 예술성을 평가

하는 문제를 집중 거론하는데 있다. 문학 연구는 연구자의 관심과 연구 대상에 따라 장르론, 작가론, 작품론, 배경론 등의 범주를 설정할 수 있다. 작품의 평가는 작품론의 영역이다. 즉 작품론은 작품 자체를 분석하여 주제를 파악하고 작품의 기법을 논하면서 작품의 가치를 논하는 연구이다. 문학 연구의 핵심은 작품론이다. 작품이 있기에 작가도 문제되는 것이고 작품이 출현한 시기의 시대 배경도 연구하게 되는 것이며 구체적 작품의 동질성을 바탕으로 장르론도 성립된다. 이런 점에서 문학연구를 본질적 연구와 주변적 연구로 나눌 때 본질적 연구가 작품론이고 작품론의 축적에서 장르론이 형성되는 것이며 그밖에 연구는 주변적 연구가 된다. 작품론과 장르론과 같은 문학의 본질적 연구만이 문학이 역사학이나 철학 등 인문학의 다른 영역과 구별짓는 학문적 특성이라고 본다. 작가의 생평을 정리한다든지 문헌 고증을 통해 작품의 저작연대를 밝힌다든지 시대 배경을 논하는 연구는 인문학의 공통된 연구방법으로서 문학 연구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하기 어렵다. 이처럼 문학 작품의 평가는 작품론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문학의 본질적 연구로서 다른 영역의 인문학 연구와 다른 것이기에 문학의 고유한 연구시각을 필요로 한다.

작품의 평가는 평가자의 문학관이 크게 작용한다. 문학관은 문학은 어떠해야 한다는 이론에 근거를 둔 일종의 선입견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학관은 개인의 주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시대에 따라 변할 수도 있다. 문학의 정의나 기능에 대한 많은 주장이 시대에 따라 변하고 개인에 따라 다른 것은 학문의 발달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개인의 학문적 관심과 주관적 취향에 따라 같은 작품이라도 흥미를 느끼는 강도나 이에 따른 좋고 나쁘다는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관적 취향이라 하더라도 학문적 측면에서 자기 주장을 세우기 위해서는 자기의 주관적 취향을 객관적 척도로 바꾸어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것이 이른바 문학이론이다. 문제는 작품의 가치를 논하는 문제는 객관적 고증과는 달리 주관적 성향이 강하다는 것이고 평가자의 관심과 문학관에 따라 달라지기 쉽다는 점이다. 작품 평가론이 진정한 학문의 영역이라기보다는 비평의 영역이고 논쟁을 유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작품 평가의 대한 논쟁은 곧 문학론의 논쟁이고 문학 이론의 적용이나 개발과정에서 반드시 제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문학 연구자가 회피할 수도 소홀히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본다.

작품 평가에서 깊고 넘어가야 할 또 하나의 문제는 고전작품을 평가할 때 창작 당시의 관점에서 가치를 논할 것이냐 아니면 평가하는 오늘날의 시점에서 평가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고전문학은 작품이 생성된 당시의 언어관습이나 시대 배경을 모르고서는 작품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이해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가치를 논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런 점에서 저작 당시의 관점을 취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아무리 저작 당시의 관점을 취한다고 해도 평가자가 오늘날 사람이기에 저작 당시의 인물이 될 수는 없다. 또한 평가는 평가 당시의 가치관이나 문학관이 작용하는 것이기에 저작 당시의 가치관에 근거한 평가는 비평의 영역이 아니고 비평사의 영역에 가깝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평가자의 식견이나 가치관에 의한 평가를 하되 작품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당대의 문화에 대한 충분한 섭렵이 요구되는 것이다. 결국 현재로부터 작품이 지어지고 읽혀진 과거로 투시하는 안목이 필요하다. 웰렉과 워렌이 문학이론에서 말한 투시주의(perspectivism)적 관점이 고전작품을 평가하는데 적절한 관점이라고 생각된다.

## 2. 소설작품의 평가론

소설작품은 어떤 것이 좋은 것이고 어떤 것이 나쁜 것인가? 흔히 소설의 내용이 재미있어야 하고 유익해야 하며 강한 감동을 주는 작품이 가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유익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며 재미있고 감동을 준다는 것은 소설의 어떤 측면을 말하는 것인가? 이러한 문제를 점검하기 위하여 작품을 주제의 측면인 작가 정신과 예술적 형상화의 측면인 작가의 기법이나 역량으로 나누어 논의하고 다시 이를 종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문학은 의미의 예술이기에 작품이 담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다. 그러나

문학작품의 의미는 논설문이나 설명문과는 다르게 진술된다. 따라서 의미를 구현하는 기법이나 역량 또한 중요하다. 작품의 의미는 작품에서 다루는 소재를 문학의 관습에 맞도록 형상화하는데서 드러나는 것이기에 소재나 주제의 성격과 구성의 치밀성이나 묘사의 팝진성, 문장의 세련도와 같은 기법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논의의 편의상 작품을 통해 드러난 의미나 드러내려 한 의미를 주제나 작가정신으로 보고 이러한 주제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부각시켰는가 하는 점을 형상화의 수준으로 보아 두 가지로 나누어 논의하기로 하겠다.

소설의 경우 작품의 주제나 소재를 평가의 대상으로 삼아 수많은 비평이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비평의 근거에는 소설이 무엇이나는 장르적 성격규정과 문학은 어떠해야 한다는 문학관이 자리 잡고 있었다. 소설은 역사나 경전에 대척적인 위치에 있는 ‘街談巷語’나 ‘道聽塗說’과 같은 작고 토막난 부스러기 언어를 의미하였던 것에서 시작하여 소설이야말로 말로 인간의 삶을 입체적으로 형상화하는 최상의 서사양식이라는 주장까지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었다.<sup>1)</sup> 이러한 소설 장르에 대한 평가는 소설의 개념이 변함에 따라 달라져왔다. 구체적 작품을 의식하고 비평한 사람들도 작품세계를 문제 삼으면서 동시에 작가정신이나 다루어진 소재에 초점을 둔 비평과 형상화의 문제에 관심을 둔 비평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덕무가 소설의 세계를 ‘남녀의 풍정을 다룬 것으로 비속한 것이 많다’고 혹평한 것은 주제나 소재에 초점을 둔 비평이라면 김만중이 『동파지립』을 인용하여 『삼국연의』가 진수의 『삼국지』보다 감동을 주는 바가 많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크다고 한 것이나 양계초가 ‘소설은 불가사의한 힘을 지니고 있기에 사람의 길을 지배한다’고 평한 것은<sup>2)</sup> 주제를 형상화하는 측면에 초점을 둔 발본이라고 본다.

소설은 작가의 상상력으로 꾸며진 서사문학이다. 즉 인물을 등장시키고 등장인물의 움직임을 통하여 의미를 드러내는 문학이다. 소설의 총체적 의

1) 조남현, 『소설 신문』(서울대학 출판부, 2004)에서 동서양 소설관에 대한 정리가 자세하게 이루어진 바 있다.)

2) 조남현 앞의 책 참조.

미를 주제라고 한다면 주제는 작가의 창작 정신이면서 작품을 통해 주장하려는 작가 의도가 내포된 것이다. 여기서 작품에 담겨진 주제나 사상에 대한 가치가 문제된다. 아무리 재미있는 이야기로 꾸며진 작품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건전하지 못하거나 인간의 삶에 해롭다고 한다면 이는 좋은 작품이라고 하기 어렵다. 즉 주제의 가치는 곧 작가정신의 가치이고 가치 있는 인간정신은 고귀한 인간 정신이고 가치가 없는 인간정신은 저열한 인간 정신이라고 쉽게 판정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유익하고 고귀한 인간 정신이란 어떤 것인가? 구체적 작품을 떠나서도 흔히 사회 주변에서 선행으로 칭송되는 행위와 악행으로 폄하되는 행위가 있다. 선행은 사회가 칭송하는 가치 있는 인간 정신의 발로이고 악행은 사회가 비난하는 저열한 인간 정신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남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행위나 불의에 맞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투쟁하는 행위, 또는 위기를 극복하는 인고의 정신이나 사회나 국가 또는 전 인류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탐구하고 발명하고 개발하는 정신, 그리고 인간 존재의 본질을 파헤치기 위한 수도나 수련 등 수많은 가치 있는 인간 정신이 있다. 이처럼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인간정신의 발로로 이루어지는 인물의 행위를 담고 있는 소설 작품은 가치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남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행위는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러한 행위를 미화한 경우 작가정신의 측면에서는 고평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또한 개인적 쾌락에 집착하거나 말초적 감각적 쾌락만을 추구하는 작품인 경우에도 가치 있는 인간정신의 발현이라고 평가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실제로 조선조 사대부들은 소설이 좋다거나 나쁘다는 주장을 폈다. 조선조 사대부들의 논평은 대체로 인간의 정욕이나 권력욕, 재물욕과 같은 본능적 욕구를 죄악시하고 억제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 성리학의 심성론에 근거를 둔 것이다. 특히 소설에서 다루는 주제가 남녀의 사랑인데 이는 정욕을 억제하여 인성을 도야해야 한다는 성리학의 윤리에 배치되는 것이기에 소설을 배격한 것이다. 또한 사대부들은 문학은 도(道)를 담아내는 그릇이라는 제도적(載道的) 문학론을 견지한 사람이 많았는데 대부분의 소설 작품이 사대부가 생각하는 도를 구현하지 않고 있다고 본 것이

다. 이러한 유학적 교양의 토대에서 비평이 이루어졌던 것이고 이런 기준에서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하여 가문소설 범주에 드는 많은 작품이 권선징악이나 충, 효, 열을 담아내는 성향을 띄게 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오늘날 관점에서 가문소설은 작가정신의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고 본다. 이는 현대는 조선조와 가치관이나 윤리관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개화기 신소설에 이르면 선과 악의 관념이 달라진다. 신소설의 작가들은 전통윤리를 지키는 것을 인습을 중시하고 옛 것을 고수하는 수구(守舊)의 정신으로 폄하하고 개화는 선으로 생각하였다. 이해조가 ‘춘향전을 음탕 교과서로 심청전을 처량 교과서로, 홍길동전을 허황 교과서로 제반 악징이 여기에서 나온다’고 혹평한 것은<sup>3)</sup> 충, 효, 열로 대표되는 전통윤리를 담은 소설의 주제를 부정한 비평이라고 볼 수 있다. 신소설은 대체로 여주인공의 수난을 다룬 작품이 많은데 수난의 시작이 부모의 주혼에 반대하고 자기 스스로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 가출을 단행하면서 시작된다. 이처럼 작가정신이나 주제에 대한 평가는 시대에 따라 문학관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고귀하고 사회에 유익한 인간정신만이 바람직한 소설의 주제라고 할 것인가?

영웅호걸의 살인행위나 모자라는 인물의 실수나, 간교한 인물의 사기행각, 호색한의 이성편력 등과 같은 주제는 소설에서 용납될 수 없는 것인가? 이 문제는 소설이 어떤 장르이고 소설 작품의 주제를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도 연결되는 것으로 간단히 말하기 어렵다고 본다.

문제는 소설이 수신교과서나 설교집이 아니기에 이러한 인간정신은 여러 유형의 인물을 등장시켜 형상화함으로써 대조적으로 기술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제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작품의 주제를 파악하는 것부터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잘못 주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는 것은 평가의 오류를 범하기 쉽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호전』이나 『금병매』, 『동키호테』나 『적과 흑』과 같은 작품은 세계적 명작이나 걸작으로 알려진 작품인데 작가정신의 가치만을 위에서처럼 양분법으로 논할 경우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한다. 『수호전』은 부패한 사회를 고발하고 혐의를

3) 앞의 책 참조.

중시하는 사나이의 세계를 생동감 있게 그린 명작으로 고평된 작품이다. 그러나 인간사회에서 가장 죄악시하는 살인행위를 밥 먹듯 하고 호걸의 의리만을 중시하여 행복한 가정을 파괴하는 등 부정적 인간정신도 적지 않은 작품이다. 『금병매』는 호색문학으로서 작품에서 귀결되는 의미는 인간의 성욕이 화를 부른다거나 욕정의 이면을 드러내어 경계심을 주는 것이라고 변호할 수도 있겠으나 성적 욕구를 발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 주도적 의미가 있는 작품임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동키호테』의 경우는 문제가 있다. 작가가 일부러 부정적 인물을 주인공으로 설정하여 풍자하고 있기에 작품의 주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해석하기에 따라 의견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적과 흑』의 경우도 주인공이 성실한 노력으로 성공하려하지 않고 여성과의 관계를 통하여 사회적 출세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주인공의 의식세계는 결코 건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당대 사회의 각 계층의 생활실상과 허점을 파헤친 작품이라는 점에서나 하층의 인물이 여성과의 접촉을 통하여 상층으로 편입하려다 비극으로 끝난다는 점에서 작가정신이나 주제를 다르게 파악할 경우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이처럼 소설의 주제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작가정신에 대한 평가는 달라진다고 보며 작품의 정당한 평가를 위해서는 올바른 작품의 주제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음으로 아무리 고귀한 인간정신과 인물의 행위를 담으려고 하였더라도 그것이 소설의 관습에 맞게 형상화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흥미와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소설로서의 형상화는 작가의 문학적 창작 능력과 관련을 가진다. 인물의 행위로 야기되는 사건의 제시가 필진성이 있어야 하고 행위묘사나 대화 또는 정경묘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형상화는 작가의 문장력과 지식, 체험, 사고력, 상상력 등 작가의 총체적 능력이 반영되는 부분이다. 소설이 역사의 기록이나 성현의 사상을 담은 경서보다도 더욱 영향력이 크다는 것은 양계초가 ‘모든 문장 가운데 그 요묘함을 다하고 기교의 신묘함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것으로는 소설만한 것이 없다’<sup>4)</sup>고 한 말에서 잘 드러난다. 소설은 허구이면서 실제보다도 완벽함을 추구한다. 역사의

4) 조남현 앞의 책 참조.

기록은 사실을 중시하기는 하나 기록자가 모르는 부분을 상상력을 동원하여 채워 넣을 수가 없다. 그래서 체험한 사실만 기록으로 남을 뿐이고 항상 불완전하고 미진한 여백이 있게 된다. 그러나 소설가는 같은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다루더라도 상상력을 발휘하여 사건의 전후수말이나 인물의 행위는 물론 상황의 입체적 묘사와 인물의 내면심리까지 서술함으로써 독자가 사건의 전모를 이해하도록 한다. 이해가 충분하게 되어야 의미를 파악하게 되고 여기에서 감동이 생겨난다. 경전의 구절들은 심오한 사상을 담고 있으나 일반인이 그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의미를 깨달은 사람의 설명을 듣는다고 해도 듣는 사람이 자신의 체험이나 생각과 부합됨을 발견할 때 그 의미가 비로소 확실하게 이해되는 것이다. 그러나 경전의 의미를 소설의 주제로 삼아 이야기로 꾸며 작품을 지었다면 이를 읽는 사람이 쉽게 의미를 터득할 수 있다. 그래서 문학이 역사보다도 철학보다도 위대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본다.

이처럼 소설은 철학이나 역사와 달리 상상력으로 구축한 완벽한 서사이다. 문제는 작가의 역량에 따라서 형상화의 수준이나 기법이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형상화의 수준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형상화가 잘된 작품은 재미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재미있는 작품은 일단 문학적 형상화에 성공한 작품이고 이 문제에 대한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재미를 주는 작품과 감동을 주는 작품이 다르고 재미도 어떤 재미를 어떻게 주는가 하는 점에서 우열이 갈리게 된다. 소설들 중에는 얇은 재미로 독자로 하여금 현실을 망각하고 작품세계 속으로 도피하도록 하는 경향이 있는 작품이 있다. 흔히 대중에게 인기를 끄는 무협류나 공상과학소설이 그러한 예이다. 또한 말초적 자극에 주력하여 감각적 쾌락을 주는 작품도 있다. 이러한 소설의 작가는 발명가이고 독자는 현실도피자나 현실 망각자적 성격을 가진다. 작가는 일상에서 접하기 어려운 진기한 사건이나 구경거리를 발명하여 작품세계를 구축하고 독자는 현실에서 작품세계로 도피여행을 하면서 현실을 망각하고 진기한 사건이나 풍물을 구경하게 된다. 그러나 작품을 다 읽은 후에는 다시 현실로 복귀하면서 작품세계는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소설을

통속소설 또는 도피소설, 시간 죽이기용 소설이라 말한다. 이러한 소설에서 작가는 놀랄만한 작가적 역량과 기법을 보여주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예술적 측면에서 높이 평가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반면 깊은 감동을 주는 작품은 독자가 자신을 발견하고 인간존재나 사회 문제에 대하여 깨닫고 반성하도록 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작품이다. 이러한 작품은 작가 나름의 인간에 대한 심오한 해석이나 사회를 비판하는 예리한 통찰적 안목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작품을 문예소설, 진지한 소설 (serious fiction) 해석소설(interpretive fiction)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작가는 발견자이고 독자는 현실과 자신의 문제를 작가의 예리한 관찰력과 형상화의 능력에 힘입어 새롭게 인식하고 발견하게 되며 감동을 받고 깨달음을 얻게 된다. 문제는 작가가 아무리 심오한 사상을 개진하고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였다고 해도 이를 이해하는 독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소설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쓴 글이기에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재미있고 쉽게 써야 될 필요가 있다. 어려운 문제를 쉽고 재미있게 형상화하는 능력 이것이 진정한 작가의 능력이고 높게 평가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작품의 올바른 평가를 위해서는 평가자가 또한 작품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작가 의도를 파악하는 분석력과 통찰력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그렇다면 소설의 평가 문제는 작가의 역량이 중요하며 이를 평가하는 데는 평가자의 안목과 작품 이해 수준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작가의 의도가 작품을 통하여 독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려면 주제를 형상화하는 작가적 기량이 필요한 것이고 작품을 통하여 작가의 의도를 바르게 파악하려면 작품분석이나 해석이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평가하는 문학 연구자의 안목과 진실성이 갖추어져야 된다는 것이다. 작품의 평가는 작품에서 분석되는 주제 즉 작가 정신과 작품의 형상화의 성숙도인 작가의 역량의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구체적 고전소설 작품을 예로 들어 논의하기로 하겠다.

### 3. 고소설의 작품평가 문제

#### 3.1 <홍길동전>과 <구운몽>

<홍길동전>과 <구운몽>은 모두 잘 알려진 고전소설이다. 그런데 두 작품은 모두 영웅적 인물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으면서도 작품에서 지향하는 작가정신이나 작품의 형상화 기법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작가정신의 측면에서 두 작품에 대한 평가를 논하여 보기로 하자

<홍길동전>은 허균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허균은 광해군 때 역모를 피하다가 발각되어 처형된 인물로서 끝내 신원 복권이 되지 않은 인물이다. 이런 점에서 허균은 조선조 지배계층인 사대부들에게는 부정적 인물이었다고 본다. <홍길동전>의 작가정신인 작품의 주제도 조선조 당대의 지배층의 가치관과는 배치되는 부분이 많은 작품이다. 흔히 <홍길동전>의 작가정신을 적서타파, 탐관오리의 징치, 빈민구제, 능력본위의 인재등용, 해외진출 등으로 추출하여 오늘날 관점에서 사회개혁정신을 담고 있는 선구자의 사고로 높이 평가되어 왔다. 이에 반하여 <구운몽>은 김만중이 지은 작품으로 불교적 적멸세계인 성진의 세계와 세속적 부귀향락의 세계인 양소유의 세계가 꿈을 매개로 표리를 이루면서 인간의 존재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룬 작품으로 논의되어 왔다. 김만중은 숙종조 당쟁의 와중에서 남해 배소에서 일생을 마쳤으나 인현왕후의 복위와 더불어 복권된 인물로서 정파에 따라 인물평이 차이가 있으나 조선조 사대부의 삶을 충실하게 살았던 인물이라고 본다. 이런 점에서 소인으로 평가된 허균과는 다른 인물이다. 이러한 학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작품 평가문제를 논하기로 하겠다.

#### 2.1. 작가정신(주제)의 평가와 관련하여

<홍길동전>에 담겨진 작가정신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홍길동전>의 주제를 올바르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하여 진정으로 말하고자 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

것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구는 <홍길동전>의 가치를 높이 평가할 수 있는 혁신적 사상을 찾으려고 하였고 작품을 전체적으로 분석하여 소설적 형상화를 통해 드러난 의미를 대상으로 가치를 논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흔히 이야기 되어온 적서타과의 정신부터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홍길동은 천비소생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의 차대와 박해에 맞서 자기를 살해하려는 자객을 죽이고 아버지에게 호부호형할 것을 허락받았으며 서얼출신은 일정한 품계 이상의 벼슬은 할 수 없다는 국법을 어기고 왕으로부터 병조판서의 벼슬을 받아내었다. 이러한 홍길동의 행위가 적서타과의 정신을 소설적 형상화를 통해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부정하는 사람은 홍길동의 행위는 서얼차대를 시정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영달에 집착한 것으로 홍길동의 출세는 초능력을 가진 예외적 인물의 예외적 사례일 뿐 사회의 잘못된 제도를 개혁하려는 정신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홍길동은 왕이 어찌할 수 없는 막강한 힘으로 왕을 굴복시켰기에 잘못된 제도를 시정하라는 요구는 얼마든지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만나 병조판서를 받아내는 자리에서 차대로 고통 받는 서얼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작가가 진정 서얼문제를 시정하려는 의지가 있었고 이를 작품에서 드러내고자 하였다면 당연히 홍길동은 제도 개혁을 시행하여 서얼차대를 폐지하는 일을 행하였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서얼로 태어난 인물이 자신의 뛰어난 능력으로 차대를 극복하였다고 해도 이는 예외적 인물의 특수한 사례일 뿐 서얼차대라는 제도의 잘못을 인식하고 이를 혁파하려는 개혁의 정신을 담았다고 보기 어렵다. <홍길동전>에서 작품을 통해 제시된 의미는 ‘유능한 인물은 제도가 잘못되었더라도 이를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작품 실상에 밀착된 판단이라고 본다.

다음 능력분위의 인재등용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하자. 허균은 『유재론(遺才論)』에서 재능을 기준으로 인재를 등용하고 신분을 기준으로 인재를 등용하는 폐단을 지적했다. 이러한 능력분위의 인재 등용 정신을 <홍길동전>에서 찾을 수 있고 이는 작가정신의 측면에서 작품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근거의 일부가 된다는 것이다. 홍길동은 유능한 인물이었지만 신분적

결함이 있어 높은 벼슬을 할 수 없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결국 율도국왕이라는 인세에서 극귀한 왕위를 차지하고 만다. 이를 통해 『유재론』 적 정신을 구현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작품에서 소설적 형상화를 통해서 제시된 의미는 능력 본위로 인재를 등용하여 그 능력 발휘를 통해 국가를 발전시킨다는 내용을 보여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조선국에서 도적의 행각을 하는 홍길동의 능력 발휘는 국가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개인의 출세나 명성을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은 판단이다. 또한 홍길동의 능력은 비현실적인 도술을 부리는 것이다. 초인을 만들어 혼백을 부쳐 활동하게 하고 황건 역사를 부리고 구름을 타고 다니는 등 허황한 상상력으로 구축한 실현성 없는 능력들이다. 이러한 능력을 가진 자가 현실계에는 없기에 능력 본위로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는 현실적 의미를 상실하고 마는 것이다. 오히려 <홍길동전>에서 구현된 작가정신은 ‘능력 만능주의 사고’라고 할 수 있다.

다음 해외진출 사상을 검토하여 보자 홍길동은 바다의 섬나라인 율도국을 발견하고 이를 정벌하여 왕이 되어 다스린다. 이를 해외 진출 사상으로 해석하였다. 해외 진출 사상은 국내에서만 아니라 국외에서 활동한다는 것으로 활동범위가 국제적이라는 의미이다. 즉 외국과 통상을 한다든지 외국에 나가서 활약하여 국가의 명예를 높이거나 국가적 이익을 증진하였을 때 해외 진출 사상이 의미를 갖는 것이다. 홍길동의 율도국 정벌은 해외 진출이라기보다 외국 정벌사상이다. 조선의 장수로서 다른 나라를 공격하여 멸망시키고 왕이 되어 통치권을 차지하는 것은 개인의 권력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정벌사상이고 국외로 진출하여 국제적 활약을 통해 국가적 이익을 증진하는 해외 진출 사상과는 차이가 있는 사상이다.

<홍길동전>은 신분제 양반 관료 사회에서의 제도적 문제점은 잘 드러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를 개혁하거나 시정하는 방식은 개인적 출세에 머물고 있어 선구자적 사고가 바르게 구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소설형상화의 수법이 졸렬한 데 기인하는 것이며 작가정신도 성숙한 인간정신이라기보다는 미숙한 반항정신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작품의 실상에 근접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본다면 <홍길동전>은 오늘날 관점에서도 그

예술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기에 주저되는 점이 많은 작품임을 알 수 있다. 다만 허균이 지은 한글소설이라는 전제에서 최초의 한글소설이라는 문학사적 평가는 별도의 문제가 된다.

그러나 <구운몽>의 경우는 작가정신과 이를 구현한 작품의 형상화 기법이 모두 성숙한 작품으로서 높은 평가를 받을 만 하다고 본다. <구운몽>의 주제는 여러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으나 <금강경>의 공사상(空思想)을 바탕으로 인간존재의 성찰을 다룬 작품으로 보는 견해가 설득력을 가진다. 비록 작품의 대부분이 양소유의 부귀공명과 여성 편력의 향락생활로 채워져 있지만 이는 나름대로 세속인간의 이상적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만약 <구운몽>이 양소유의 향락생활만 담았다면 이는 퇴폐적 인간정신을 나타냈다는 점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누구나 바라는 부귀공명과 애정 실현의 이상이 구체적 모습으로 형상화 되어있고 이를 통하여 인간 존재나 욕망이 부각되고 다시 이를 부정하는 결말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불교 존재론의 소설적 형상화에 성공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불교의 영원불멸의 이상과 세속의 공명향락주의가 성진과 양소유로 설정되어 토론을 하면서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 모두가 그릇된 집착으로 인하여 존재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 작품이라고 본다. 문제는 이러한 난해한 철학적 주제를 소설로 형상화한 기법이 더욱 놀랍다는 것이다. 성진의 세계에서 양소유의 세계로 진입되는 입몽의 처리와 양소유의 세계에서 성진의 세계로 나오는 각몽의 처리가 모호한 듯 하면서도 매우 기교적인 고등수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액자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현대소설의 액자처리보다도 훨씬 교묘하다는 점에서 작가의 기량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 3.2. <춘향전>과 <옥루몽>

<춘향전>은 고소설의 백미로 높이 평가되는 작품이다. <춘향전>의 문학적 가치를 주제적 측면에서 논할 경우 주제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다. 춘향전의 주제를 비친한 신분의 한 여성이 신분상승을 목

적으로 열절을 내세워 수절을 고집한 끝에 신분상승을 이루어 내었다고 한다면 열절의 정신은 신분상승을 위한 방편이 된다는 점에서 가치 있는 인간정신의 구현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신분제 사회에서 열등한 신분의 한 여성이 주위의 탄압에 저항하면서 주체적으로 애정을 실현하여 자아를 성취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평가는 달라진다. 그렇다면 실제 작품에서 소설적 형상화를 통해 제시된 작품의 주제는 어떤 것인가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춘향전은 수많은 이본이 있다. 작품 평가는 이본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까지는 춘향전 작품군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평가를 목적으로 작품본이 성실하게 수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경판본이나 고대본 등의 이본에는 춘향이 이도령을 만날 때에 기생의 신분이었고 이도령과 춘향의 만남은 기녀춘향과 사또 자제와의 만남으로서 이도령에게 춘향은 일시적 타정을 못 참은 유희의 상대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춘향의 주체적 애정 실현의 정신은 제대로 형상화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열녀춘향수절가>는 비교적 춘향의 주체성이나 저항 정신을 형상화하는데 성공한 작품으로 보인다.

<열녀춘향수절가>에서 변학도가 춘향을 설득하기를,

“미재 미재 계집이로다. 네가 진정 열녀로다. 네 정절 굳은 마음 어찌 그리 어여쁘냐 당연한 말이로다. 그러나 이수재는 경성 사대부의 자제로서 명문귀족 사위가 되었으니 일시 사랑으로 잠간 노류장화하던 너를 일본 생각하겠느냐 너는 근본 절행있어 전수일절하였다가 흥안이 낙조되고 백발이 난수하면 무정세월 약류과를 탄식할 제 불쌍코 가련한 게 너 아니면 뉘가 가랴 네 아무리 수절한들 열녀포상 누가하랴 그는 다 버려두고 네 골 관장에게 매임이 옳으냐, 동자놈에게 매인 게 옳으냐 네가 말 좀하여라”<sup>5)</sup>

라고 현실의 이치를 말하며 현명한 판단을 하라고 설득한다.

변학도의 말은 실정에 맞는 말이다. 그러니 춘향을 기생으로 보고 기녀

5) 구자균 교수, 『춘향전 한국고전문학대계 10』, 민중서관, 1970, 135—136년

로서 삶을 사는 것을 전제로 가장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 것이다. 이러한 변학도의 춘향에 대한 태도와는 달리 이도령이 처음 방자를 시켜 춘향을 설득할 제,

“내가 너를 기생으로 얹어 아니라 들으니 네가 글을 잘 한다기로 청하노라. 여가에 있는 처자 불러보기 정문에 궤이하나 혐의로 알지 말고 잠깐 다녀가라 하시더라”<sup>6)</sup>

라고 말한다. 즉 이도령은 춘향을 대등한 인격의 주체로서 존중하면서 총각이 처녀에게 구애하는 진심을 보였다면 변학도는 기녀로서 삶을 전제로 실리적 선택을 요구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춘향이 변학도에게 항거하면서 이도령과의 신의를 끝까지 고집한 것은 자기 신분에 맞는 분수를 중시한 것이 아니라 주체적 인간으로서 자아를 실현하려는 의지의 결단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춘향의 행위를 통하여 형상화한 인간정신은 가치 있다고 할 수 있다. 남녀간의 사랑은 당사자의 감정이 중요하고 주체적 결단이 바람직한 것인데 권력으로 강제하려 하고 신분이라는 제도로써 인간의 존엄한 인격을 무시하려 하는데 대하여 항거한 것이며 이는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이처럼 작품의 주제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그 평가는 달라진다.

<춘향전> 이본들의 평가는 인물의 형상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관이 포악한 인물로만 설정된 이본에서는 춘향의 억울함이나 불쌍함은 강조되지만 춘향의 갈등이 심화되지는 못한다. 반면 신관이 풍류로 달래고 실리로 설득하면서 접근하는 이본에서는 춘향의 갈등은 증폭되고 춘향의 자율성이 돋보이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 이본이 신관은 몰인정하고 포악한 인물로 설정되고 풍류남아의 남성적 매력을 보이는 작품이 없다. 이는 춘향전의 인물형상화나 주제 구현의 기법에서 고평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본다.

이우성 교수는 서민의 정서를 담아내고 있다는 측면에서 <홍길동전>, 연암소설로 이어지는 서민정신의 소설적 발현이 <춘향전>에서 가장 고조

6) 앞의 책, 27면.

되는 것으로 보고 <춘향전>을 높이 평가한 바 있다.<sup>7)</sup>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서민정신의 발현이 가치 있는 문학정신이라는 전제에서 연암의 서민정신을 높이 평가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주장이다. 그러나 양반정신은 가치가 적고 서민정신은 가치가 있다는 문학관도 문제가 있지만 춘향전이 서민정신만 담아내고 있다고 보는 것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춘향전>에는 방편인지 진정인지는 몰라도 열절(烈節)의 정신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춘향이 변학도에게 항거한 명분이 ‘열녀불경이부(烈女不更二夫)’라는 열절의 정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은 서민정신이라기 보다는 양반 사대부의 정신으로 보는 것이 옳은 판단이다.

<옥루몽>은 양반신분인 남영로의 작품이다. 그러나 <춘향전>과 같은 기녀의 신분갈등을 형상화하고 있다. 춘향이 이도령과 인연을 맺고 변학도의 수청을 거부한 것과 강남홍이 양창곡과 결연하고 황자사의 요구를 거절한 것은 기녀 신분의 한 여성이 양반신분의 두 남성 사이에서 주체적으로 결단하고 행동했다는 점에서 같은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구체적 형상화의 방법은 차이를 보인다.

우선 여성 주인공인 춘향과 강남홍의 인물 형상화의 측면을 검토하기로 하겠다. 이본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열녀춘향수절가>등 다수 이본에서 춘향의 인물은 방자의 설명으로 묘사된다.

“설부화용이 남방에 유명키로 방침사 병부사 군수 현감 관장님네 엄지받가락이 두 뺨 가웃씩 되는 양반 외입장이들도 무수히 보려하되 장강의 색과 임사의 덕행이며 이두의 문장이며 태사의 화순심과 이비의 정절을 품었으니 금천하지절색이요 만고여중군자오니 황송하온 말씀으로 초래하기 어렵네다.”<sup>8)</sup>

이 같은 방자의 말은 관노의 말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유식한 고사로 범벅이 되어 있다. 그러나 여성을 칭찬하는 공식구를 집합시킨 것으로 춘향의 개성을 부각시킨 생동감 있는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처럼 여중군

7) 이우성, 「實學派의 문학」, 『국어국문학 16』, 국어국문학회, 1957.

8) 구자관, 앞의 책 23면.

자로 설명된 춘향이가 방자의 전갈을 듣고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은 다음과 같다.

“네가 미친 자식이다. 도령님이 어찌 나를 알아서 부른단 말이나 이 자식  
네가 내 말을 종자리새 열씨까듯 하였나 보다.”<sup>9)</sup>

여기서 춘향의 언어는 태사(太媻), 이비(二妃)에 비견되는 여중군자의 언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상스러운 면을 본다. 이처럼 사리에 맞지 않는 서술이 판소리문학의 특징이고 생동감 넘치는 인물의 대화라고 고평할 수도 있으나 인물의 형상화 측면에서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강남홍은 기녀이면서도 형상화된 모습은 유식하고 예절이 바르면서도 민첩하고 영리한 여성으로 나타난다. 이는 <춘향전>에서처럼 설명으로 대체된 것이 아니라 언행으로 표현된 것이기에 인물형상화의 수법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다. 강남홍은 경각간에 읽은 소주와 항주에서 압강정 잔치에 참여한 선비들이 지은 오십 여 편의 시를 암송하는 것으로 기억력이 비상한 인물임을 보여준다. 또한 한번 맺은 인연을 배신하지 말자는 의미를 춘향처럼 불망기를 받고 허신하는 것으로 나타내지 않고 수재로 변장하여 양창곡의 인간됨을 시험하여 신의를 중히 여기는 인물임을 직접 대화를 통해 알아보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작가가 개입하여 설명하는 것보다 인물의 말과 행동으로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 바람직한 인물 형상화의 기법이라면 <옥루몽>이 인물 형상화에서 <춘향전>보다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강남홍이란 인물이 현실에 존재하는 기녀로서 실재성이 있는 인물인가 하는 점은 문제가 된다.

또한 신분감등을 서사로 형상화한 대목에서 <춘향전>과 <옥루몽>은 큰 차이를 보인다. 춘향은 직설적으로 신관에게 항거한다. 관장 수청을 거절한 죄목을 논하는 변학도에게 ‘유부 겁탈은 죄 아니고 무엇이요’라고 대든다. 그러나 강남홍은 전당호 뱃놀이에 초청을 받고 망망한 호수에 띄워진 배 가운데서 황자사의 뿔박을 받고 거문고를 타 음률로 자기 소회를 표현

9) 앞의 책, 25면.

한 다음, ‘유유창천아 흥을 내실 제 어찌 그 처지를 천히 하시고 마음을 달리 품수하시뇨’<sup>10)</sup> 라고 외치고 수중으로 투신한다. 신분과 주체적 자아의 갈등을 이처럼 극명하고 처절하게 표현한 것은 <옥루몽>이 높이 평가 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옥루몽>의 주제는 단일하게 규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등장인물이 보통사람보다 뛰어난 인물로 그들이 능력을 발휘하여 국가의 경영을 바르게 하고 동시에 일상적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삶의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춘향전>과는 다른 작품이다. 또한 탁월한 인물의 부귀공명을 성취하는 삶과 재자가인의 풍류를 함께 보여주면서 천상계와 연결지어 인세의 삶을 주관하는 천상세계를 설정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구운몽>과 같이 불교의 공사상으로 앞뒤를 휘감한 작품도 아니다. <옥루몽>의 주제적 가치는 한마디로 논하기 어려우나 충, 효, 열의 조선조 윤리관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고 일부다처의 귀족적 삶을 미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평가가 긍정적일 수만은 없다. 그러나 작품에 담긴 사회사상이나 유교, 불교, 도교의 사상을 심도 있게 수용하고 천상계와 인간계를 아울러 호한한 구상을 하고 있는 점은 작가 세계관의 폭과 깊이를 말해주는 것으로서 고전소설의 명작으로 평가할만하다. 또한 이를 형상화한 기법이나 작가의 역량의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한 작품이라고 본다.

#### 4. 맺음말

문학작품의 예술적 가치는 작가정신과 작가의 역량에 의해서 좌우된다. 문학뿐만 아니라 예술작품은 모두 그렇다고 할 수 있다. 도자기를 만들 때도 기계로 같은 것을 양산하는 것은 예술작품으로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 작가의 창작 아이디어는 곧 주제의식이고 이것이 구체적 작품으로 형상화된다. 창작의 영감은 노력한다고 얼마든지 샘솟는 것이 아니다. 영감을 형상화하는데 성공 여부는 작가의 역량과 성실성의 문제이다. 결국 참신성과

10) 남영로 <옥루몽>, 세창서관, 1962, 51면. 필자가 현대 표기법으로 고침.

개성적 아이디어가 작품의 가치를 높여주고 진부하고 흔한 생각은 높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그러나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고 새롭다고 하더라도 이를 예술의 장르로 표현하는 능력이 모자라면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 없다. 그래서 화가는 사실의 기초부터 숙련해야 하고 작곡가도 기본적인 선율과 화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소설가의 경우에도 주제를 인간의 삶을 통해 부각시키기는 것이 요구되는데 인물의 성격묘사나 심리묘사 및 정경묘사, 그리고 사건을 연결시키는 치밀한 구성의 기법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문학작품의 평가는 작가정신인 주제와 주제를 형상화한 창작 기법의 측면에서 이루어진다고 본다. 문제는 평가자의 문학관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고 이는 문학론의 논쟁을 유발하는 동인이 된다. 그러나 문학론의 차이에 앞서 학문적 비평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치밀한 작품 분석을 통해 주제를 바르게 파악하고 작가의 기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일이 선결조건이라고 생각된다. 작품의 주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작가정신의 가치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고 평가자의 심미안이나 예술성에 대한 인식의 수준에 따라 작품 이해도 차이가 나고 이에 따른 예술성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제를 바르게 파악하고 형상화의 기법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정당한 평가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작업임을 강조해 둔다.

결국 소설의 문학성을 논하는 문제는 작품에 담긴 작가의 세계관과 작가의 창작능력의 평가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정한 문학관에 기댄 평가라도 문학이론이나 예술이론에 대한 객관적인 논리를 제시하여 독자를 설득시킬 수 있어야 문학 연구로서 의의를 지닌다고 본다.

### 참고문헌

- 구자균, 『춘향전 한국고전문학대계 10』, 민중서관, 1970.  
남영로, <옥루몽>, 세창서관, 1962.  
이우성, 「實學派의 문학」, 『국어국문학 16』, 국어국문학회, 1957.  
조남현, 『소설 신문』, 서울대학 출판부, 2004.

## Issues Involved in Evaluating Fictional Works

Seo, Dae—seok

In evaluating literary works, one must consider the evaluation of the author's thought contained within the work—that is, the theme—and the evaluation of the author's ability—that is, technique. The theme must be sound and original, and the realization of this theme must be achieved satisfactorily in order for the work to be excellent. Also important, though, is the insight and capability of the judge, who must be able to properly grasp the work's theme and accurately determine how well the theme is realized in the work. The task of evaluating literary works can ultimately be said to depend on the literary views of critics.

In the case of fictional works, there are various methods of realizing the theme. Satirical fiction, for example, introduces a negative character as the protagonist and makes paradoxical claims. Fiction portrays human life in three dimensions, and thus, if it is to successfully manifest its theme, must contain description of the personalities or psyches of the characters, description of the social situation, and the elaborate structural techniques required to connect events. This sort of technique of realization depends on the ability of the author.

In order to fairly evaluate a work of fiction, a proper understanding of the work must come first. In the case of classical novels, *The Tale of Hong Gildong* was highly evaluated as a masterpiece that is filled with the author's innovative thought. However, an analysis of the work reveals that the theme is the idea that capable individuals can always succeed, unhindered by the system. Also revealed is the author's lack of skill in realizing this theme. In this regard, the evaluation of *The Tale of Hong Gildong* must be rethought. On the other hand, *A Dream of Nine Clouds* is a work that shows exceptional skill on the part of the author. The work may be evaluated as a masterpiece in that the author delves deep into the problem

of human existence through the clever construct that contrasts the real world of Seongjin and the dream world of Yang Soyu.

The Tale of Chunhyang is known as a representative masterpiece of classical Korean fiction. By comparison, Dream of the Jade Chamber has been neglected. Both works have a female protagonist of gisaeng status who refuses to give bed service to a government official and preserves her chastity for the man she loves. In terms of the technique used to realize this theme, though, Dream of the Jade Chamber is superior. In this regard, classical fiction must be reevaluated.

Keywords : Korean classical Novel, classical fiction, evaluation